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시드니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12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10월 1일 (월간)

순교자의 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리는 날

지난 21일 본당 친교의 날 열려, 한마음으로 즐겼던 축제의 날



매년 본당 친교의 날에는 언제나 날씨가 청명했다. 행사는 날씨가 그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데 언제나 좋은 날씨로 교우들의 친교의 장이 한층 은혜로워진다.

지난 21일 뉴잉턴 리저브에서 열렸던 '2014년 본당 친교의 날' 도 예외가 아니었다.

12지구 각각 텐트를 치고 지구의 구역원들이 모여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일상생활이나 생업의 부담으로 활동이 한동안 뜸했던 구역원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즐겼다.

9월 순교자 성월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의 대축일' 을 맞아 매년 열리는 본당 친교의 날은 야외에서 교우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가운데 순교자들의 업적과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는 하루이기도 하다.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는 강론에서 “오늘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리는 축제의 날” 이라고 말하며 “순교자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에 대한 진한 체험을 하고 그들에게 하느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 이었다. 그러기에 효도와 충성심으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굳은 신앙심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지체로써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사를 마친 후 교우들은 각 지구별로 점심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참석했고 쉬는 교우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모여서 공놀이를 하거나 더 어린 아이들은 본당에서 마련한 놀이기구인 점핑캐슬을 타고 놀았다.

지난해 파푸아 뉴기니 선교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던 해외봉사단은 따로 부스를 설치해 커피와 음료를 판매했고 이 중 의료봉사

팀은 혈압과 당뇨에 대한 의학상식을 알려주는 상담장소를 마련했다.

점심식사 후 운동회가 열렸다. 족구, 피구, 공굴리기, 박터뜨리기, 제기차기 등 어르신이나 아이들 끼리의 경기를 만들어 흥미를 더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인 시간이었다. 지구원들이 합심하여 응원하고 경기 등수와는 관계없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단결력을 선보인 지구가 있는가 하면 냄비뚜껑과 손가락이 악기로 변해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경품 추첨도 본당 친교의 날의 재미를 더했다. 소소한 경품에서부터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나 50인치 대형 스마트 TV까지 경품들은 행사 내내 모두 주인을 찾아가았다.

경기결과 1위 3지구, 공동2위 2지구와 8지구, 4위 7지구가 각각 수상했다.

예전처럼 각 지구별로 음식을 판매하고, 외부업체에서 부스를 차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제도가 없어져 이것저것 둘러보는 작은 재미를 더 이상 만끽할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안전사고와 남겨진 쓰레기 하나 없이 끝난 ‘본당 친교의 날’ 로 본당 교우들의 깔끔한 성격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 준비와 진행을 하고 몇날 며칠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교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년에도 하느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임 신부님의 강복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일어나 비추어라! 이사 60,1

2014' 본당 친교의 날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일시 2014년 9월 21일 주일



◀맑은 하늘아래 펼쳐진 족구의 대항연



◀'우리 지구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열정의 자매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영성체를 모실 때는 경건하게 합니다



▼장하다 순교자여! 주님의 용사여! 순교자 성월의 대축일 미사



▼청명한 날씨 속의 야외 미사



▲행사의 꽃은 역시 춤이지~



▲맛있는 점심을 다함께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운다

▲'왕년엔 좀 찼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제기차기



▶'공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 자매님들의 피구 경기



▲'하나 둘 하나 둘' 속도도 중요하지만 마음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아슬아슬한 바통 터치 달려라 달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	----------------------

이명순 데레사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본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사랑을 드리고 신으로받는 병의원" 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복녀 권 데레사



권데레사(1783-1819년)는 한국천주교회 창립에 공헌한 권일신의 딸이다.

권일신은 학문이 높은데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경향의 선비들이 문하에 들기를 원했던 인물이었다. 이 고명한 선비는 교회 초창기에 이벽, 이승훈, 정약전 등 후학들한테서 천주교를 접한 뒤, 앞뒤 재어볼 겨를도 없이 그 지도자로 떠받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신해박해(1791년) 때에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점찍혀 형조에 잡혀 들어가 곤욕을 치른 후,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고문 후유증으로 객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데레사는 일곱살에 어머니를 아홉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오라버니 권상문도 신유년(1801년)의 칼바람이 휘 몰아칠 때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에 고향 양근에서 참수로 순교했다. 이런 가문 소생이므로 데레사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백합꽃 가운데서도 옥백합이라 할만하다.

그녀는 신유박해 이전에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성사의 은혜를 받고 나서 동정을 지키며 살기를 결심했으나, 조선 시대의 사회 풍습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주위의 권유를 거역할 수 없어 처지가 비슷한 교우 조숙(베드로)과 혼인했다. 그러나 데레사는 혼인 첫날밤에 자신의 뜻을 종이에 적어, 희미한 등잔 밑으로 남편에게 내밀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조숙이 어리둥절하여 뭘 글인고 펼쳐보니 이러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선 몸을 깨끗이 하여 천주께 나아감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이는 부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고신극기(苦身克己)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그리하여 이들

은 동정부부로 살기로 합의하고 이후 형제 자매의 정으로 서로를 대하며 위하고 화목하게 살았다.

이는 한 살 터울인 고종 사촌 언니 이순이(루갈다), 유중철(요한) 내외를 본받은 것이다. 이들 두 동정부부는 20여년의 세월을 두고 그 계보를 잇는 쌍 백합들이다. 조숙에게 아내는 삶의 반려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었고 믿음의 인도자였다.

이때에 정하상(1795-1839년)은 나이 20세로 은신해 살던 고향 마제를 떠나 상경했다. 그러나 마땅한 처처가 없던 중에 같은 양근 사람으로 인정스러운 조숙내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그 맥 문턱을 넘어설 때에 조숙은 동지애로 환대해 주었고, 그의 아내 데레사(씨 동갑)는 동기간의 정으로 반겨주었다. 데레사는 정하상의 선친 삼형제(약전, 약중, 약용)가 사숙했던 스승 권일신의 따님이 아닌가!

이제 조숙과 권데레사 부부의 체포 당일의 상황을 적어본다. 이날은 북경으로 떠났던 정하상이 돌아온다는 기별이 있어, 데레사는 하상을 보러 올 교우들을 위해 한낮부터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하상이 애오개(현 아현동) 근처에 이르렀을 때 노새가 다리를 절룩거리더니 더 못 걸겠는지 뺨대는 게 아닌가. 노새 고집 당할 장사 없더니 과연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그리하여 주막에서 하루를 더 묵게 되었다.

이야말로 ‘천우신조(天佑神助: 하늘의 도우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만약 정하상이 이날 예정대로 왔더라면 그는 물론 핵심 교우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 날 해질 무렵에 한패의 포졸들이 조숙의 집 문을 박차고 들어 닥쳤기 때 문이다. 그 중 한명이 조숙을 향해 욕박질렀다. “네가 조숙이였다. 양근 사람 조가가 맞지?” “이 무슨 행패란 말이오! 무슨 일로 양반을 이리 대한단 말이오?” “우리는 네가 천주 사학을 따르다는 걸 알고 찾아 왔단 말이다. 교회 관련 물품들을 다 내놓아라.” 조숙은 잡아떼어 보아도 소용이 없는 줄을 곧 간파했다. “천주교를 받드는 건 사실시오. 하지만 무슨 물품이 있겠소? 잡아가겠다면 나 하나만으로 죽할 것이오.” 포졸들이 가택 수색에서 축일표와 상본 그리고 필사본 ‘천주공경가’를 압수하고, 조숙을 결박지어 끌고 나오는데 아내 데레사가 앞을 막아 섰다. “나도 교인입니다.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포졸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떠들었다. “아니, 아녀자가 어디라고 나서나? 허 참, 이런 여편네 봤나? 화를 자초하지 않나?” 하며 데레사의 등을 밀어 지아비의 뒤를 따르게 했다. 당시의 나라 법에는 여자는 결박하지 못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의 공조 사실을 적어본다. 당상에 좌정한 포장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 간밤에 잠을 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

삼 소실(小室: 작은 부인)의 눈매가 불쌍사 나워진 거나 그 건달 오라비가 비위 좋게 얼 썩거리는 게 마뜩잖아서도 아니다. 썩은 생선보다 못한 천주학생이에게 역정을 내면서 다그치고, 게다가 시답잖은 학문 놀음으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였다.

“들거라, 너희들은 어리석음이 도가 지나쳐 공연한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내, 너희들을 가련히 여겨 그 동안 혹독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그게 언제까지 갈지 나를 시험하려 들지 마라. 죄인 조가에게 묻는다. 누구와 한통속인가 묻지않겠다. 다만 요상한 내용으로 선량한 백성을 현혹하는 독사의 혀 같은 교회의 서적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것만을 말하라. 내 오늘은 그것만으로 덮어 두겠다.” “이보오 관장, 내 집에서 나온 그것뿐이외다. 믿어 주십시오!” “에이 고안놈! 내일이 간악한 놈을 동정하다니, 우이독경(牛耳讀經: 쇠귀에 경읽기)이로다.”

“좋다. 그렇다 치고 죄인 권녀(데레사)는 마음을 고쳐먹었는가? 묻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꿈지럭대고 있단 말인가?” “아뭇 말씀이 없기에 그러하옵니다.” 가냘픈 몸 피대로 목소리 또한 여리고 떨렸다. 하지만 그 음성 안에 감추어진 강단의 견고함에서 포장은 섬뜩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는 양반가의 아녀자다. 변변찮은 남편을 만난 탓이겠거니 해서 눈감아주마. 누구를 고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배교만 해라. 그 정도야 뭐가 어려우냐?” “어렵지 않나니요? 나리, 이 세상에 그 말을 입에 올리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허 참, 고약한치고! 도대체 천주 뭐가 하는 게 네 아버지가 되느냐, 윗대의 누군가가 되느냐?”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어찌 그분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누구든지 부모를 배반하는 사람은 용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배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포장이 계속해서 천주를 모독하고 나서자 (내용은 생략), 죄수 여인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거둬된 형신에 찌들려 기미가 끼고 잔주름이 골을 짓고 있는 얼굴이지만, 권일신의 혈육, 천주의 배필 되기를 소원했던 데레사의 입에서는 서릿발 같은 카랑카랑한 대답이 나왔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관장나리, 오직 한 분이시며 만물의지배자, 악을 벌하시는 천주의 이름을 그처럼 욕되게 하시다니요,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리의 영혼이 어떤 지옥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뭐라고 저런 포악한 년 같으니! 어느 안전이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느냐? 오늘 네 죄값을 톡톡히 받도록 해주마” “여봐라! 저것들을 매우 처라. 아니 연놈 할 것 없이 각각 태형 삼십대를 치도록 해라.”

죄인들이 인사불성(人事不省: 사람도 몰라볼 정도)이 되자 포장은 손을 들어 형을 멈추게 했다. “이놈 매맛이 어떠하냐? 이것 저것 묻지 않겠다. 단지 천주를 모른다고 만 말해라” --침묵-- “왜 가만히 있으세요, 당신께서 참 생명을 얻을 이 좋은 기회를! 안다고 대답하세요.” “어찌 천주를 모른다 할 수 있겠소이까?” “조가 늙에게 물었거늘 계집이 불쌍사납게 나선단 말이냐? 이 꼴같은 사내야, 계집 말 듣지 않고 선 입이 벌어지지않더냐?” “그게 아니옵고 포장, 관용(寬容)을 베풀십시오.”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용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참아 이겨내면 천상의 영복을 누리게 될 줄 왜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행여 약해져서는 안됩니다.” “저년, 주둥이 닥치지 못할까? 여봐라, 사내놈에게 나머지를 다 치고, 저년한테 스무 대를 더 쳐라. 오 등급도 합 선 대이니라. 기다릴 것 없이 동시에 시행하라.”

형벌이 끝나고 여자 옥으로 가기 위해 헤어지기 전 데레사는 남편을 돌아보며 “잘 이겨 내셨어요, 여보, 이 고통이 훗날 천배 만배로 갚아질 걸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세월은 짧겠지요, 우리에게 뭐가 아쉽겠어요,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다. 조숙 데레사 부부는 1817년 체포되어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1819년 3월 8일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조숙 베드로, 권 데레사,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세분은 복자 반열에 오르셨다.

위의 글은 교회사(20회)에 이미 연재된 내용을 재조명한 것이다. 다음은 복녀 강완숙 골롬바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강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군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제일종합금융
홈론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매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주님을 닮은 봉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6주 동안의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마친 280여명의 봉사자들이 파견 예절을 가졌다.

본당에서 열린 파견 예절에서는 말씀의 전례, 세족례에 이어 평화의 인사를 나눴다. 발을 씻기는 행위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돌보는 봉사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세족례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진지한 태도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발을 뺨에 대고 주님의 훌륭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해줬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땐 신부님과 수녀님을 포함한 280여명 전원이 큰 원을 그려 둘러서고 서로를 포용하며 한 바퀴를 도는 형식을 취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각각에게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들도 있었다. 박현지 아가다는 "세족식에서 전혀 모르는 분의 발을 만지면서 감사가 절로 나왔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은숙 마르타는 "교육을 진행하신 주임 신부님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신부님은 교육을 통해 교우들과 친분을 더욱 쌓으셨고 우리는 사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생겼고 이것은 봉사자로 일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첫 주에는 소공동체 봉사자들의 임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소집문

신앙의 네비게이션

첫 수업시간, 기초교회 공동체인 소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명제를 기본 메뉴로 시작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워크북'이란 네비게이션을 한 권씩 손에 들었다.

주임 신부님께서도 스포츠에서 육상은

개인이 해내는 종목이지만, 소공동체는 마치 축구 경기처럼 팀 전체가 움직이고 역할을 해내야 하는 종목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소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운동경기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주셨다.

매달 한번씩 열리는 구역 모임(소공동체)은 본당과 교구 그리고 보편 교회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나무 뿌리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고 당신의 삶과 피를 나누셨고 당신 내면의 깊은 생각을 우리와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눔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공동체의 기초인 복음 나누기에서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복음 나누기 시간에는 모임의 장소에 예수님의 자리를 반드시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공동체 모임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를 보면 신앙의 네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다.

또한 복음 나누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단어 하나하나 보석이 아닌 게 없지만-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 반복하는 것은 각자의 보물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공동체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활력을 얻게 되며 믿는 이들의 진정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변모한다.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한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있었다. 교황님은 우리나라를 '순교자의 나라'라고 하셨다. 그 순교자들 옆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시고 그 분들의 뺨속과 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속속 박혀 있었기에 목숨까지 내놓으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신부님의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교육과정 마지막 날 세족례가 거행됐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축복의 기도와 세족을 나누는 가운데 한 자매님이 지난 밤 이를 위해 미리 발을 여러 번 씻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타인을 위하는 큰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었다. 이 날의 세족례는 우리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축복의 기도,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는 시간에는,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열심히 하지 못했던 나 자신은 어디를 가버리고, 그 동안 특히 소공동체 모임에 마음을 다하고 구역 식구들의 일이라면 먼저 챙겨주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활동을 했던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은혜로웠다.

교육을 마치고는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주임 신부님과 함께 대전 교구에서 온 네비게이션이 주님 안에서 늘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하고 그 쪽으로 내 자신의 방향을 확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8)"

저는 이미 시작했거든요. 주님 고맙습니다. 신부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4지구 6구역 김연심 율리아

혼자 막연할 때 힘이 된 교육

6월 어느 날 우리 구역 구역장님이 임기를 마치고 차기 구역장을 뽑게 됐는데 내가 그 임무를 맡게 됐다.

어떠한 경험도 없는 나는 전임 구역장들과 구역분들을 믿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차기 단체장들은 6주간의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전달사항이 내려왔다.

그저 혼자 막연하게 생각할 때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을 받은 것이다.

소공동체를 모르는 나에겐 참으로 뜻깊은 교육이었다.

첫째로 소공동체의 개념이었다.

보편교회의 뿌리는 소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모든 이는 소공동체에 필수적으로 소속돼 복음화라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로 복음 나누기이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기는 복음을 읽고 묵상

하고 잠시 침묵 뒤 어색한 분위기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나니 우리가 복음 나누기를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고, 침묵과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겪었던 일을 진심으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으며 참된 친교를 이루는 복음 말씀의 시간이 돼야 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정하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활동 토의 방법을 배웠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어디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배웠고 모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역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봉사함에 앞서 교육을 들어 무척 유익했다.

3지구 6구역 박성철 분도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Smart Eye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e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력이 있는곳에 세계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사무실 전화 시스템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